

PR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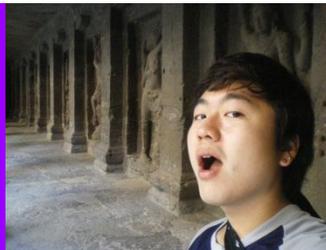
KARAN



AAL IZZ WELL

10TH BATCH OF RAONATTI
MUMBAI, INDIA

ROHAN



NEE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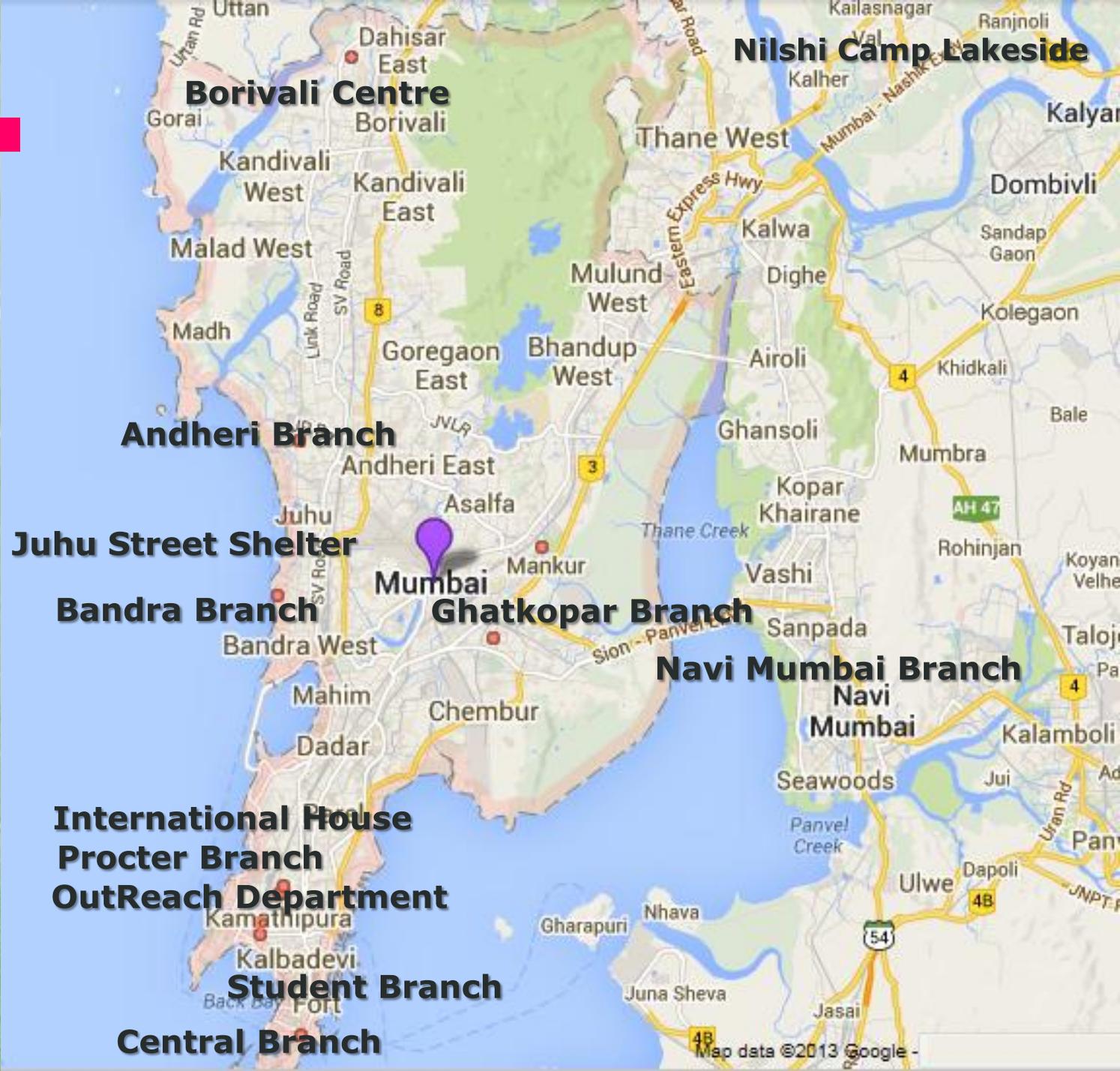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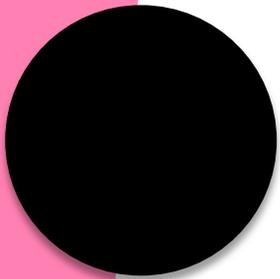


BOMBAY YMCA

EMPOWERING YOUNG PEOPLE

- Youth, Women & Children에 초점
- Hostel, Balwadi, Counseling Center, VTC(Vocational Training Center), 등을 비롯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및 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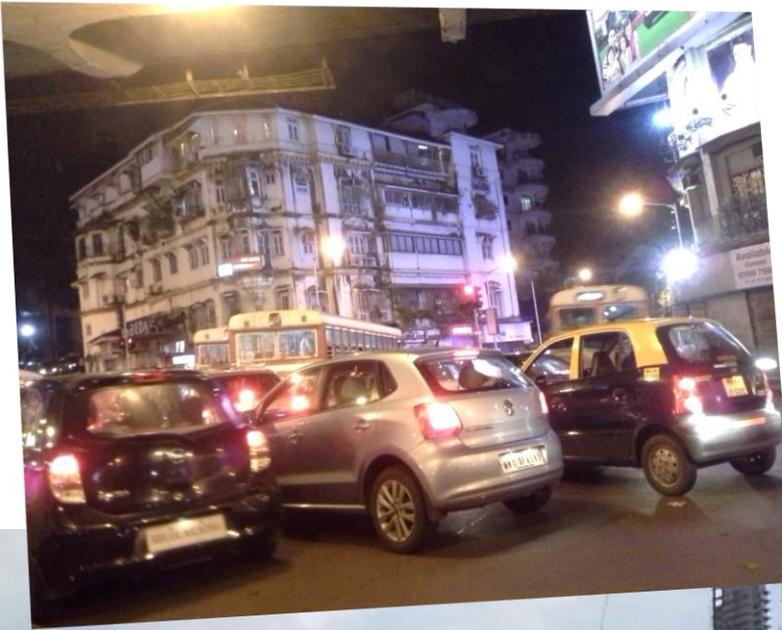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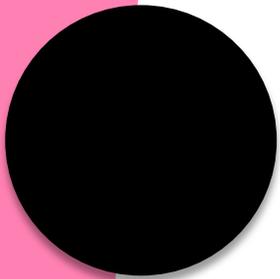
다섯 달 동안 저희가 생활했던 인도의 뭄바이 지역에는 Bombay YMCA가 있다. 뭄바이 지역의 크기가 상당하여 지역별로 10여 개의 Branch를 비롯해 캠프장(Campside)이 존재한다.

Bombay YMCA는 청년, 여성, 아동에 초점을 맞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 직장인, 여행자 등을 위한 호스텔을 비롯하여 직업훈련시설, 상담센터, 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별로 수영이나 농구, 춤 등의 수업을 진행하는 등 각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

라온아띠 10기인 저희는 처음 두 달 동안은 International House에서 머물며,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OutReach Department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이후 잠시 Nilshi Camp Lakeside로 이동하여 2주 동안의 시간을 보낸 후 나머지 기간은 Andheri Branch에 머물며, 함께 위치한 Boys Home에서 지냈다.

참고로 10기 코디네이터는 Navi Mumbai Branch와 Borivali Centre의 Secretary인 Sebastian과 Robin 이었는데, 덕분에 Navi Mumbai나 Borivali 등 같은 도시 내에 위치하지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지역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뭄바이는 '도시'다. 대한민국의 도시 한 곳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고층건물이 한 켠에 있으며, 현재의 건물보다 더 높은 건물이 지어지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반대로 한 쪽에서는 흔히 슬럼가로 규정지어 말하는 판자집이 늘어져있거나, 혹은 길가에 집이라 할 수 없는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결코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는 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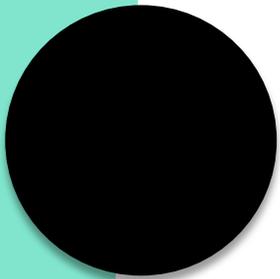
뭄바이에는 '사람'이 많다. 인도 내의 경제수도답게 인구가 많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퇴근길처럼 교통체증(러시아워)이 있고, 승용차, 트럭, 택시에 리샤, 여기에 사람들까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사람으로 붐빈다. 남성중심의 사회이지만 일하는 여성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전통 옷보다는 좀더 간소화된 복장을 입은 현대화(?)된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도시화가 진행된 만큼, 그렇게 호화로운 주택에 사는 부자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빈자도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분명 볼리우드(Bollywood) 영화처럼 특별하고 화려한 부부도 있지만 전부가 그렇지 않은 평범한 도시다.

HINDI CLASS

- 단어, 관용어구, 자주 쓰이는 문장, 동시, 국가(國歌) 등 학습
- 힌디어를 배우고 서툴게나마 활용함으로써 사람들과 관계 맺기나 상호작용 하는데 있어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었음.





약 두 달 동안 우리는 인도 공용어인 힌디어를 매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짧은 기간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점이나 전혀 접한 적이 없는 힌디어를 영어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와 닿았다.

그렇지만 현지에서 영어보다는 한마디 힌디어가, 힌디어보다는 지역(마라하슈트라주)언어인 마라티어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듣고, 몸소 실감하고 있었기에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힌디어 시간에 배운 단어나 문장을 활용하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어 기뻐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온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생각할 때를 생각하며 생각지도 못했던 상대방을 떠올리기도 했다.

SARTH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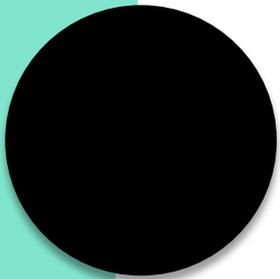
PLAY-SCHOOL



PLAY-SCHOOL

- Balwadi, pre-school
미취학아동 어린이집(놀이방)
- 간단한 영어 Chant 및 율동
-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 서투른 힌디어도, 뛰어나지 않는 영어도 아닌 몸으로 대화하는 첫 걸음.
- 차츰 우리에게 보여주는 호감.





힌디어 수업을 마친 후에는 Balwadi라고 부르는 Play-School(Pre-school)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 나갔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놀이방) 성격과 비슷한 이곳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취학아동들이 모여, 하루 3시간 정도씩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다.

9월에는 단순히 수업을 보조하거나 놀이 활동을 같이하며, 인도 지역의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 친구들이 영어 알파벳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역훈련에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여 간단한 단어나 인사말이 들어간 영어 Chant와 율동을 실시했다. 또한 주 1회씩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처음에 반응을 보이지 않던 아이들이 차츰 반응을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서투른 힌디어도, 잘하지 못하는 영어도 아닌 몸으로 대화하는 법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아이들과 관계하면서 다가가려는 마음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OUTREACH DEPARTMENT

Night Study Centre





NSC

Where is Korea?

कोरिया कहा है?

MONGOLIA

- Night Study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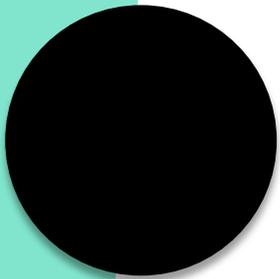
저소득 아동의 야간 자율 학습 공간

- 학습 보조

- Korean Culture Day

한국 문화 소개

-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



Night Study Centre는 말 그대로 야간 자율 학습이 이뤄지는 공간이다.

YMCA에서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공간을 할애하여, 숙제 등을 하기 위한 학습 공간이 필요하거나 보충 학습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Night Study Center를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씩 선생님 1분의 지도아래 이뤄지는 프로그램에 저희도 월, 수, 금요일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참석했다.

적을 때는 10명 이상, 많을 때는 20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석하는데, 영어와 수학을 제외하고는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제한되어 있고, 영어로 소통을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편으로는 외국(한국)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받는 계기이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고민하기도 한 시간이었다.

특히, 활동 마지막 날에는 한국소개, 한국전통놀이, 달고나(간식)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등의 행사를 진행하여 고마움, 아쉬움도 전하고 추억도 만들었다.

KAMATHIP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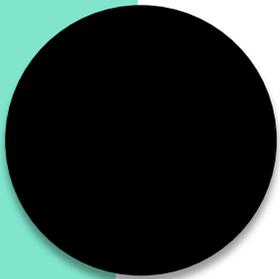
Day Care Centre
#1. Interaction with children



DCC

- Day Care Centre
하교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장소,
놀이공간이자 학습공간
- 영어 Chant 및 율동
- 관련 놀이 활동
- 열명 남짓한 아이들과 관계 맺기.





Kamathipura 지역은 홍등가로, 또 하나의 슬럼가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넓게 분포한 지역의 한 켠에 YMCA에서는 건물을 임대하여 Day Care Center를 만들어 Balwadi, DCC, VTC, Night Study Center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의 Day Care Center에 소속된 아이들과 같이 우리들의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열명 남짓한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위주로 진행했으며, 토요일에는 간단한 영어 Chant와 율동, 관련 놀이 활동을 연계하여 진행했다.

열명 남짓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와줘서 좀 더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활기차게 뛰어 노는 아이들에 힘을 얻어 지친 몸에도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노력했다. 더욱이 건물 주위를 둘러싼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꼭 진행하여 이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KAMATHIP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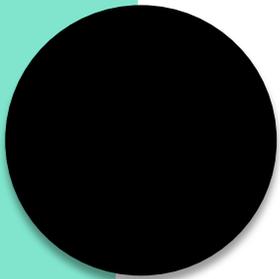
Day Care Centre
#2. Clean-up Project





- 쓰레기 투기 문제
- 주민 간담회 개최
다과회
Korean Culture Day
- 창문 및 외벽 도색 작업
- 주민과 함께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환경개선(청소)활동으로 이어가고자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함.





DCC(Day Care Center)는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자 모두가 사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여 주변 쓰레기가 쌓여 소음, 악취, 위생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Staff의 조언을 얻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과회 형식의 주민간담회(Korea Culture Day)를 개최하여, 현재 상황과 문제의 심각성을 전달하여 함께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가볍게 전달하였다. 이후 주기적으로 환경정화, 즉 청소활동을 이어나가고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진 주민모임을 만들어 유지하고자 했으나 갖가지 사정이 겹쳐 실시하지 못했다.

한편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건물 창문 도색 작업 및 외벽/출입구(GATE)옆 벽화 작업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좀 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이곳 마당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쓰레기와 벽화의 대비를 생각하면서 깨끗한 공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END POVERTY CAMPAIGN

AAL IZZ NOT WELL



END POVERTY CAMPAIGN

- 빈곤 : 화장실, 화장실이용, 위생
- Community Meeting
빈곤퇴치의 날 소개 및 여성 화장실 문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참가자들과 생각 나눔
- End Poverty Campaign Poster 제작
- Road Campaign @ station
여성 화장실 부족에 대한 퍼포먼스(플래시몹), 관련 부스 설치, 일반 시민대상 유인물 배포 및 의견/제안 접수, 화장실 위생관련 이벤트.



10월 중순에는 빈곤퇴치캠페인(End Poverty Campaign)을 진행하기도 했다.

적응기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화장실의 부족함에서 출발하여, 화장실 이용 촉구와 화장실 위생까지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되었다.

이에 직업훈련(VTC)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화장실의 부족과 화장실 위생에 대해 생각을 나눴으며, 하루는 뭄바이에서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역인 CST역을 찾아 반나절 동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련 부스를 만들고 홍보물을 배포하고, 화장실 빈곤에 대한 의견을 받기도 했다. 이벤트를 실시하여 문구가 새겨진 비누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퍼포먼스(플래시몹)를 실시하여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빈곤퇴치캠페인 주간에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몇몇 YMCA Branch에 부착해 Member들이 화장실 문제를 비롯한 빈곤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했다.

뭄바이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문제가 공론화되기 어려운 문제였다.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비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현지의 문화(?)를 새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소통에 대한 부분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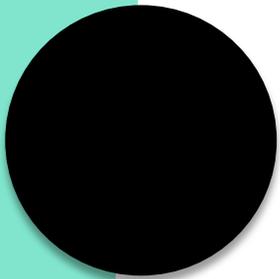
시민배포용
종이비누



YOUTH CAMP

Winter Camp





11월에는 인도의 큰 축제 Diwali를 맞아 방학에 들어가자 YMCA 캠프장(Nilshi Lake campside)에서 3종류의 캠프가 진행되었다. 각각 YMCA Member를 대상으로 한 캠프, 저소득층 친구를 대상으로 한 캠프(Fresh Air Camp), Boys Home 친구들과 함께한 캠프였다.

그곳에 참가하여 우리는 다양한 계층, 연령의 청년들과 만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윷놀이, 딱지 등의 한국 전통 놀이를 알려주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전해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편 기회가 닿아 캠프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마을(Nilshi Village, Khandi Village)을 찾아 도시 몸바이와 다른 인도 시골 마을의 모습을 짧게나마 보고, 여러 고민을 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BOYS' HOME

(Andheri)



MORNING TUITION

- Morning Tuition

저학년(유치원~4학년) 오전 학습 시간

오전 7시 30분~9시 30분

4명의 봉사자 선생님(1학년 ~ 4학년)

- 단원들이 각 학년 별로 분산되어 학습 보조

- 아이들과 좀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나 관심이 높아짐.





Andheri에 위치한 보이즈홈(Boys Home)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경우, 고학년은 오전에, 저학년은 오전에 등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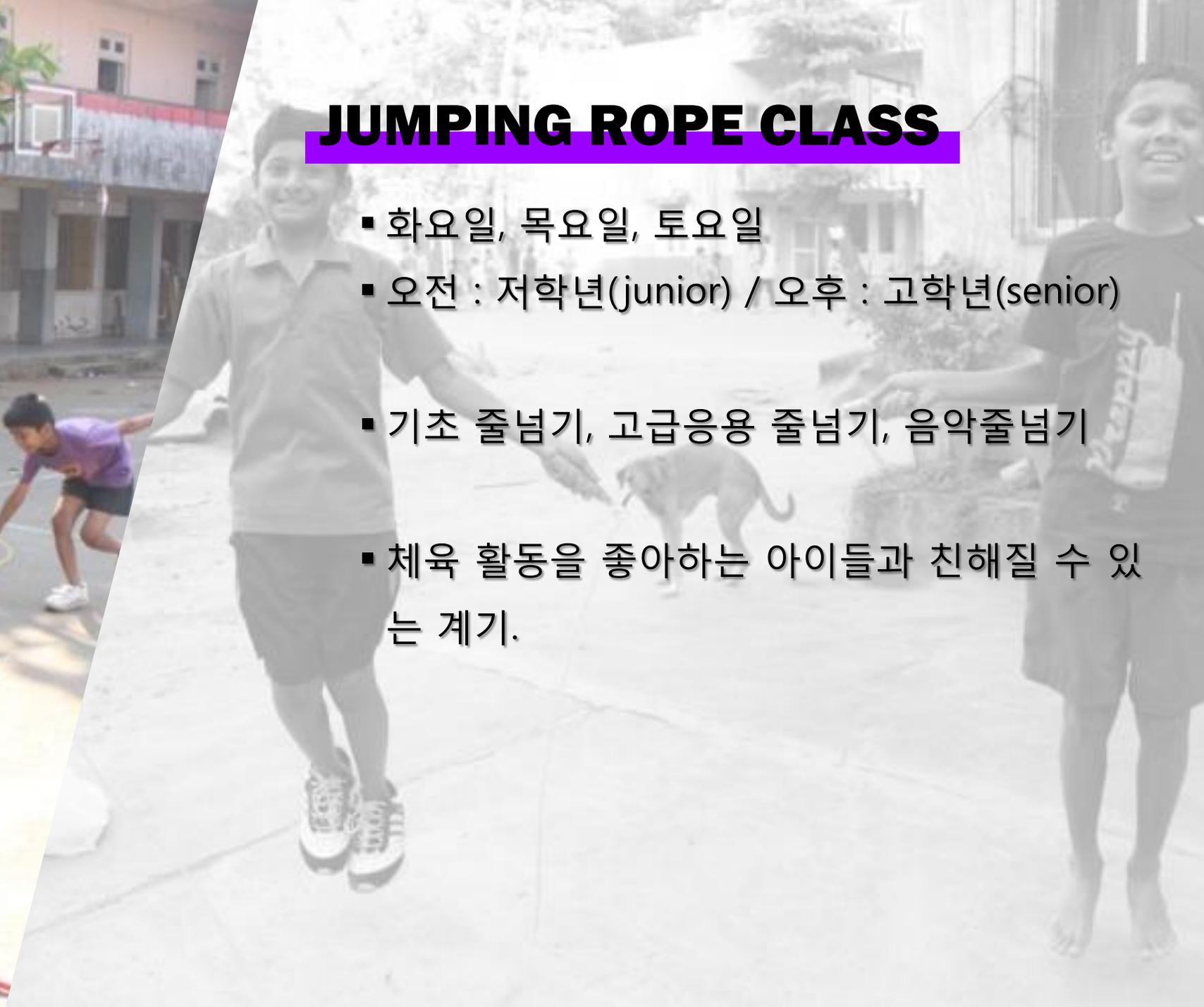
이로 인해 오전에는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Tuition이 진행되는데, 아이들의 학습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모닝 Tuition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KARAN(류병수) 단원은 유치원생 그룹에, NEETA(조현정) 단원은 2학년 그룹에, ROHAN(서용덕) 단원은 3학년 그룹에, PRIYA(박소현) 단원은 4학년 그룹으로 나눠 기존의 봉사자 선생님 혹은 보이즈홈 생활 전반을 돌보는 Aunt를 도와 학습을 진행하였다. 의도치 않게 1월에 있는 시험을 대비하여 학습을 보조하게 되었지만 그보다 아이들과 좀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비록 전문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서로 각자의 반에 학습내용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고민하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개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이들에 대해, 또 자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JUMPING ROPE CLASS

-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 오전 : 저학년(junior) / 오후 : 고학년(senior)
- 기초 줄넘기, 고급응용 줄넘기, 음악줄넘기
- 체육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





체육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줄넘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줄넘기(Jumping)을 통해 체력 향상 및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존에 진행되는 농구 수업이 없는 (자유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를 이용하여 한 시간씩 수업을 진행했다.

수준에 따라 기초 줄넘기와 고급 응용 줄넘기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줄넘기와 줄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활동을 함께 병행했다. 또한 토요일에는 음악줄넘기를 실시하여 한국문화(K-POP)를 접하는 동시에 즐겁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자유적 참여로 하다 보니 잠깐하고 다른 놀이를 하는 등의 아동이 보이기는 했지만 꾸준히 함께하고 연습하여 실력향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많아 그들을 지켜보는 과정이 좀 더 흥미로운 활동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동작을 쉽게 설명하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으며, 함께 움직이는 활동을 하며 서로 부담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KITCHEN GARDENING

-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텃밭을 형성
큰 돌이나 통나무를 활용하여 텃밭 테두리 만들기
마른 나뭇잎과 소 똥을 섞어 흙 만들기
- 여러 아이들이 텃밭에 물주는 것이나 마른 나뭇잎을 모으는 활동에 관심을 보여 함께 활동에 참여 시킴
으로써 지속 가능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





캠프 기간 중 진행되었던 Farming Session의 영향을 받아 Andheri Branch(Boys Home)의 공터를 활용하여 텃밭을 바꾸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우선 전체적인 텃밭을 디자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돌을 이용하여 테두리를 만들고 마른 나뭇잎과 소똥을 활용하여 흙을 만들었다. 동시에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개선을 하는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텃밭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후 화분에 씨를 심고 새싹이 자란 후에는 큰 밭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한 칸에는 망고나무 묘목을 심어두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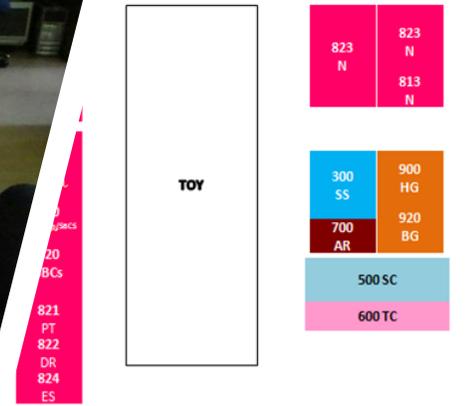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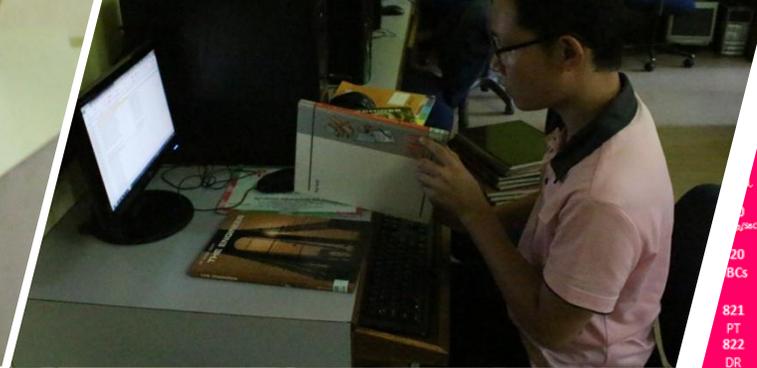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매일 텃밭에 물을 주거나 낙엽을 줍는 활동에 관심을 보여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공터에서 초록빛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아이들의 우리들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덕분에 화분에서 자란 식물(시금치)를 텃밭으로 옮겨 심고, 새로운 씨앗, 묘목 등을 심는 활동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 과정 뿐만 아니라 주인 의식도 가지게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활동(관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LIBRARY

- 도서관 확장 이동
(책 도서관) + (장난감 도서관)
- Database 제작, 미분류 도서 분류
- 공간 배치 및 진열, 도색 작업
- 장난감 분류 및 정리
- 장난감 진열을 위한 선반이 부족하여
구매와 제작을 고려하다 제작하기로
결정, 선반 제작에 시간이 다소 요구되
어 장난감의 이용은 미뤄진 상태.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관은 2층에 책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를 접근성이 높은 1층에 보다 확장된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독서 공간과 놀이 공간의 결합에 조금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장난감 도서관까지 함께 구축했다.

우선 책은 물론 장난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공간 배치를 구상하여 재배치했다. 또한 Database가 존재하지 않아 이용자와 관리자(사서 혹은 YMCA Staff)의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DB를 제작했다. 더불어 정리되지 않은 기부도서를 추가하였으며, 장난감 분류 및 정리 작업을 병행했다.

현재 도서관 이용은 가능하지만 지난해에 기부된 책이 많아 선반이 부족한 상태로, 장난감 배치까지는 무리가 있어 추가 선반을 요청했다. 이에 선반 구매와 제작을 고려하다 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반 제작에는 다소 시간이 요구되어 장난감은 현재 한쪽이 비치되어 있으며 이용은 잠시 미뤄진 상태다.

INDIA CULTURE

FESTIVAL, HISTORICAL-SITE



FESTIVALS

- Onam
- Ganesha Chaturiti
- Navratri & Dassera
- Diwali

▪ 인도의 축제를 즐기는 뭄바이의 모습을 살펴보고, 함께 즐김. 이를 통해 인도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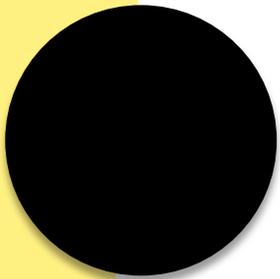


SITE

- Gateway of India, Marine Drive, Hanging Garden, etc.
- Aurangabad, Ellora, Ajanta
- Dharavi



- Mumbai(인도)의 역사, 문화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알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는 좋은 기회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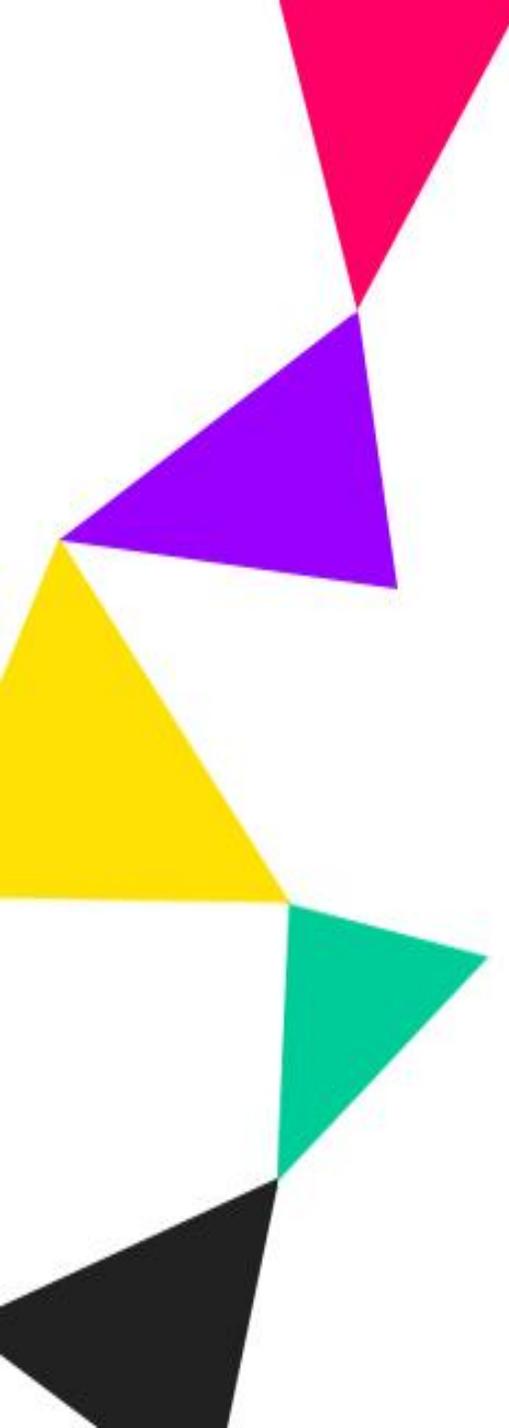


활동 외에 다양한 축제나 여러 장소를 둘러볼 기회도 얻었다.

남인도 지역의 축제인 Onam을 비롯하여, Ganesha Chaturiti, Navratri 와 Dassera, Diwali 등의 크고 작은 인도 전통 축제를 살펴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또한 Chrstmas나 새해맞이 행사를 비롯해 Republic Day 행사에 참석해 인도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뭄바이 내에서는 Gateway of india, Marine drive, Haning Garden 등을 둘러보았으며, 우연한 기회로 Aurangabad, Ellora, Agenta 지역의 UNESCO에 등재된 힌두/불교 동굴군을 갈 수 있게 되어 인도의 역사나 종교 문화에 대해서도 듣고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중간평가 당시에는 뭄바이 최대 슬럼지역인 Dharavi를 방문 지역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깊숙하게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했다.

함께 동행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단순히 우리가 살던 곳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문화를 볼 수 있어서 여러 측면을 볼 수 있는 계기였고 이를 통해 인도에 대한, 뭄바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धन्यवाद